

# The Monthly Newsletter

January, 2020 Issue 9



## CONTENTS

**ONE Ministry Plan for JAN.**  
 .....Page 1

**NEW YEAR MESSAGE  
 FROM OUR PASTOR**  
 .....Page 2

**ONE Ministry 사역 일지**  
 .....Page 3

**정보의 창**  
 .....Page 4

**Photo Gallery**  
 .....Page 4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Page 4

## ONE Ministry Plan For Jan.

<b>1월 09일</b>	The ABLE Orchestra Spring session 개강
<b>1월 11일</b>	봉사자 및 교사 트레이닝
<b>1월 18일</b>	꿈글 학교 2020 봄학기 개강
<b>2월 01일</b>	The ABLE Orchestra 초청 연주 장소: 비전 교회 (2780 Buford Hwy, Duluth 30096) 시간: 5:00 PM 행사 Jung's Music Concert

김창근 목사님께서 데이케어 설립 추진 등 다른 여러가지 사역을 위해 꿈글 학교 교장직을 2020년 1월부터 사임하셨습니다.

김창근 목사님께서 한인교회 협의회 장애인 분과 담당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윤보라 전도사님께서 꿈글 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신입학생: 김이삭(비전), 황예마(비전), 윤재혁(프라미스)  
 신입교사: 정진선(비전), 김윤정(비전), 이호성(프라미스)

# New Year Message From Our Pastor

원미니스트리 디렉터 김창근 목사



사랑하는 원미니스트리 모든 가족과 이웃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 또 다른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하늘로 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가정과 범사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해 3월이면 원미니스트리가 창립된 지 3주년이 됩니다. 원미니스트리의 시작을 돌아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서는 순간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원미니스트리 만이 겪는 과정이 아니라 모든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광야 길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살아갈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며 걸어야 하는 길은 결코 쉽지않은 않습니다. ‘젓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린 것은 오히려 힘든 광야 길이었고, 목마름이었고 수많은 결핍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다시 모세와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개인의 삶에 그리고 원미니스트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1. 광야는 내가 변해야 하는 곳입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광야에서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지 않고는 결코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2. 광야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서는 지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의 허황된 것으로 가려져 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인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숙곳에서 나오는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13:20-22)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심이 그들의 일상이었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곧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여전히 그들에게 눈앞의 현실이었고, 모든 것이 절망 같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에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킴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첫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두 번째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2020년 새 해를 바라보며, 아직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이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020년 가나안으로 입성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애틀란타 모든 장애인 이웃과 사역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 ONE Ministry 사역 일지

## 1. 동남부협의회 교사 사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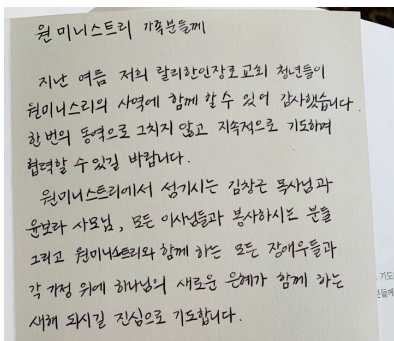
비전 꿈글과 프라미스 꿈글이 합동 종강식 리허설로 다소 긴장하고 바빴던 12월 14일 저녁 5시에 제 2회 한국 학교 교사 사은의 밤이 열렸습니다. 교사 한 분을 제외한 7명의 교사들은 회의를 부랴 부랴 마치고 나서 사은회 장소로 출발하였습니다. 멋지게 차려진 원미나스트리 한국 학교 지정 테이블에 앉아서 교사로서 대접받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은회 중에는 꿈글 학교를 새내기 학교로서 또 장애인 한국 학교로서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 네 명의 교사에게는 새내기 교사로서 격려의 상품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동남부 협의회로부터 소정의 지원금과 벽시계를 전달 받았습니다. 꿈글 학교가 이제 정식 한국 학교로 등록되어 여러 행사와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자금 지원이나 교재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 이웃 학교와 학생들과 나란히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 2. 프라미스 꿈글과 비전 꿈글의 연합 종강식



12월 21일 프라미스 교회에서 프라미스 꿈글과 비전 꿈글의 합동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꿈글에 다니는 장애인 학생들, 교사, 봉사자, 부모님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대되어 그 동안 이룬 성취들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 꿈글에서 진행되었던 음악 프로그램인 오케스트라도 합동으로 연주를 해서 큰 감동을 남겼습니다. 이 날 최승혁 프라미스 담임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셨고, 선우인호 동남부 협의회 회장과 조재익 한국 교육원 원장이 격려사를 전달했습니다. 행사 후 선우인호 회장은 이 꿈글 사역이 기폭제가 되어 다른 지역의 장애인 한글 학교 모델로서 쓰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해 왔는데, 이것은 첫 학기를 지나면서 꿈글이 갖게 된 목표와 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한글 교육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해외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모국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 함께 나누는 일입니다. 꿈글 학교의 영향력과 지경을 넓혀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3. 신실한 교회, 신실한 협력



작년 여름 캠프 두 번째 세션에 함께 해주셨던 랄리 한인 장로 교회(NC) 청년 선교팀을 기억 하시는지요? 반년이 다된 지난 1월 8일, 랄리 한인 장로교회로부터 새해 인사 카드와 함께 선교 헌금이 도착 했습니다. 청년 선교팀을 이끌어 주셨던 윤석현 목사님께서 친필로 쓰신 카드에는 교회와 목사님과 청년들의 따뜻하고 변함 없는 신실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주안에서 만나고 하나됨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으신 모습에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여름 무더위에 땀 흘리며 웃으며 기도하며 지냈던 그 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만남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로 헤어질 때 바람처럼 올 해 여름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4. 애틀랜타 한인 교회 협의회에 장애인 분과 개설



2020년 1월 10일, 애틀랜타 한인교회 협의회에 장애인 분과가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장애인분과 위원장으로 김창근 목사가 임명되었고, 현재 장애인 부서가 있는 교회들과 부서를 맡은 사역자들도 함께 협력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분과의 개설을 통해 소외되었던 장애인 이웃들이 교회를 편안하게 찾아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외 장애인 이웃에게 필요한 일들을 교회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정보의 창

## THE CENTER FOR PUPPETRY ARTS

The Center for Puppetry Arts 가 ASD 에 맞춰 특별히 교육을 받은 직원들과 편안한 환경에서 인형극을 즐길 수 있도록,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 (ASD)을 초대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감각에 예민한 친구들을 위해 모든 자극을 최소화 했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거나 자리를 뜨는 것도 허용되는 분위기에서 상영이 됩니다. 그 외에도 특별히 고안 된 교육 활동과 알맞게 조정된 인형 디자인, 조명등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전시회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청에 따라, 소리 자극을 감소 시켜주는 헤드폰, 움직이는 장난감,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스토리가 제공 됩니다.

1) Location : 1404 Spring St. NW at 18th Atlanta, GA 30309-2820 USA

2) Price & Hour <https://puppet.org/visit/hours-ticket-prices/>

3) Questions About the Center for Puppetry Arts <https://puppet.org/visit/faqs/87%20/> / 11

## PHOTO GALLERY



##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글: 정병은/사회학 박사/서울대 사회 발전 연구소 연구원/발달 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 운영위원

### 발달 장애 성인기를 준비하는 기초 공사 (3편)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당사자에게 '우선적으로' 묻고 그의 말을 인내심 있게 경청한다. 부모는 후 순위이다. 지환이가 삼천포로 빠지거나 장황하게 늘어 놓거나 합당하지 않은 얘기를 해도 끝까지 듣는다. 지환이는 자신의 말을 끊지 않고 길게 들어 주니까 입에 엔진을 달아 놓은 듯이 말을 쏟아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우웬?? 애가 이런 생각도 하네??" 싶은 상황이 적지 않았다. 부모라고 해도 자식에 대해 다 아는 것은 아니다.

2. 친분 있는 지인의 의견을 듣는 점은 완전히 신선했다. 상담을 하면 거의 대부분 엄마의 의견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미래가 결정되곤 한다. 그런데 제3자의 의견도 보탠다니 획기적인 경험이었다. 지인은 집이 아닌 장소에서 지환이를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니 지환이의 특성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행동을 집 밖에서는 했던 것 이다.

3.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갔던 모든 의견들이 시각화 되었고 그 결과물을 통째로 장애인 가족에게 건네 주었다. 2시간씩이나 장애 자녀에 대해 상담한 적도 처음이지만, 그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해서 전달받은 적도 처음인 것 같다. 많은 경우 상담 내용은 문자로 기록되므로 장애인 당사자는 이해할 수 없고 배제된다. 그나마도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되므로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여다 보면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PCP 프로그램을 마치고 참여자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어떤 것은 장 단기 계획을 짜고 있고 어떤 것은 실행하고 있다. 앞으로 지환이의 앞날에 어떤 일이 펼쳐질 지 알 수는 없지만,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준비하다 보면 지환이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성인기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조급해 하지 않고 불안해 하지 않고 지환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연습하고 준비해야 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혹시라도 나의 이기적 욕심과 과도한 보호가 성인이 된 지환이의 앞날에 장애가 되지 않기를!!

※ 위 글은 <함께 웃는 재단> 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